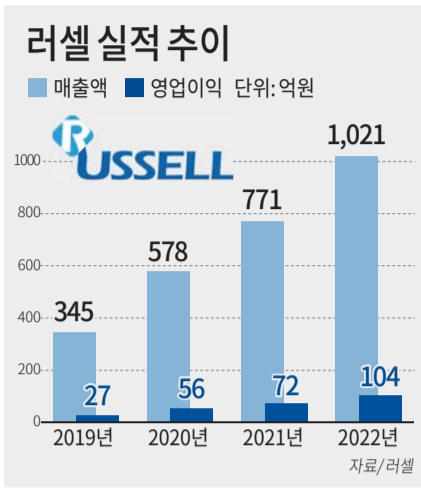


반도체 장비 호황에 매출 ‘훨훨’... 올 20% 이상 상승 전망

株라쿨라의 종목

러셀

올 장비 투자규모 1000억달러 예측
매출액 771억 영업이익 73억 예상
반도체 생산능력 꾸준히 증가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김예지 연구원은 '러셀'에 대해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 및 장비의 수요 증가로 고객사의 중고 장비 구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자회사 러셀로보틱스의 기업공개(IPO) 추진으로 자회사 상장에 따른 재평가도 기대된다"고 16일 밝혔다.

러셀은 지난 2006년 3월 설립된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중고 반도체 증착 장비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해 재판매하는 리퍼비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2020년 무인운반차를 제조하는 티엠에이를 인수해 스마트팩토리 관련 자동화 장비 제조 및 판매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본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올해 장비 투자 규모는 10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 병목 현상으로 반도체 제조설비 리드타임은 12개월에서 18개월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신규 반도체 장비의 부족으로 중고 장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김예지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IT 디바이스 수요 폭증으로 전력반도체(PMIC),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등 8인치 파운드리에서 생산되는 칩이 크게 늘어 구식으로 취급되던 8인치 장비 부족이 극심해졌다"며 "따라서 러셀의 8인치 중고장비를 찾는 고객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20% 이상의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러셀의 경쟁력은 AMAT 등 다양한 중고 장비를 구매해 고객사의 니즈에 맞게 개조할 수 있는 리퍼런스와 메모리 반도체용 8인치, 12인치 장비를 모두 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

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러셀은 리퍼런스를 바탕으로 SK하이닉스형 매출비중 50~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매그나칩, DB하이텍, SMIC 등 다양한 반도체 제조회사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완화로 SK하이닉스 중국 D램 공장 납품이 재개됐고, 지난해 지연됐던 SK하이닉스 키 파운드리 투자 재개와 주요 고객사인 DB하이텍, 인피니온 등 파운드리 고객사의 추가 수주가 하반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러셀은 지난 2020년 인수한 무인자동화기계(AGV) 제조기업인 러셀로보틱스를 올해 하반기 상장할 예정이다. 러셀로보틱스는 설계 및 제작을 모두 직접 할 수 있는 국내 '무인운반차' 최대 리퍼런스를 보유 중이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상장 준비를 위해 2월 한국투자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

고, 현재까지 한국투자증권 및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와 투자유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리서치알음은 러셀의 2022년 매출액 771억원, 영업이익 73억원을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3.4%, 30.3% 증가한 수치다. SK하이닉스, 매그나칩 등 고객사의 8인치, 12인치 중고 장비 수요 확대와 무인지게차의 현대차, LG유플러스 등 국내외 대기업들의 고객사 확대 및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추가 전망은 '긍정적'으로, 적정주가는 5000원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적정주가는 2023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238원에 추가수익비율(PER) 18배를 적용했다"며 "PER 18배는 서플러스글로벌 등 반도체 중고 장비 업체 평균 PER 10배, 무인지게차 관련 업체 평균 29배를 합산해 평균을 냈다"고 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다올證 영업이익 675억... 분기 사상 최대

(1분기)

리스크 관리 강화, 우량 딜 발굴 주효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익구조 구축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다올투자증권이 1분기 영업이익 675억원을 기록하며 증권사 전환 후 분기 영업이익 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3년 연속 사상 최대이익 달성에 이어 올해 1분기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675억원, 당기순이익 5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6%, 14.5% 증가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둔 투자릿수 성장이다.

실적향상의 주요요인은 강화된 리스크 관리와 우량 딜 발굴에 있다. 철저한 위험관리로 금리상승과 주식시장 하락에 대응했고, 강화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1분기투자은행(IB)부문의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했다. PI부문은 주식시장 하락에도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채권영업은 금리 인상 등 악화된 시장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이익을 실현했다.

계열회사 또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다. 유진저축은행에서 사명을 변경한 다올저축은행은 1분기 영업이익 250억

원, 당기순이익 188억원을 기록했다. 대출잔액은 전년 대비 2764억원 증가해 3조 5905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다올자산운용은 누적운용보수 수익이 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억원 증가했다. 고보수상품 판매의 호조로 평균 운용보수율 또한 19bps(1bps=0.01%)로 1.2bps 증가해 향후 수익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운용자산(AUM)은 지난해 연말 대비 2% 증가해 15조 6000억원으로 성장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실적 방어에 주효했다"며 "시장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회사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5월 2일 신용평가등급 공시를 통해 다올투자증권의 기업신용등급을 A0(안정적)으로 부여했다.

/박미경 기자

외국인 지난달 국내 주식 5.3조 팔았다

4개월 연속 순매도세 이어져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5조 3000억원 어치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5조 294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피시장에서 5조 162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320억원을 순매도했다.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는 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2조 9000억원)과 아시아(1조 6000억원)에서, 국가별로는 영국(1조 8000억원), 싱가포르(1조 3000억원) 등에서 한국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같은 달 국내 채권의 경우 4조 6000억원을 순매수하고 3조 9700억원을 만기상환하면서, 총 360억원 순투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 3000억원), 미주(9000억원)에서 채권에 순투자했다. 투자자들은 국채는 1조 5000억원이 순투자한 반면, 통안채는 1조 5000억원을 순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주식과 채권을 더한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액은 총 919조 4000억원 규모다. 이로써 외국인이 가진 상장주식은 4월 말 기준 696조 2000억원으로 시총의 26.7%를 차지했다. 국내 채권은 총 223조 2000억원으로 상장잔액의 9.6%를 보유하고 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메리츠증권 해외 주식·파생상품 수수료 인하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 대상

메리츠증권이 올해 말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해외파생상품 거래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디지털금융센터를 관리점으로 지정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미국 주식 0.045%, 중국·홍콩·일본 주식 0.07%의 우대 수수료율로 온라인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이벤트 대상 고객은 미국 CME(시카고 상업거래소) 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 55개 품목을 계약당 1.98 미국 달러(USD)로 거래할 수 있다. 해외주식과 해외 파생상품 모두 업계 최저수준의 거래 수수료율이다. 단, 농·축산

물과 마이크로 품목은 제외된다.

거래 수수료 인하 이벤트와 함께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도 동시에 제공한다. 디지털금융센터 고객이 온라인으로 환전하는 경우 미국달러(USD)는 90%, 홍콩달러(HKD)·일본엔(JPY)·중국위안(CNY)·싱가폴달러(SGD)·유로(EUR)·파운드(GBP)는 80%의 할인된 환전수수료율을 올해 말까지 자동 적용한다. 단, 싱가포르달러, 유로, 영국과 온드는 해외파생 거래고객에 한한다.

메리츠증권은 거래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6일부터 미국 주식시장 애프터마켓의 거래시간도 1시간 연장한다. 현재 오전 6시까지인 애프터마켓 거래시간은 오전 7시까지 늘어나게 된다.

/박미경 기자

신한금융투자 '알파TV'

'재건축 투자' 콘텐츠 공개

신한금융투자가 유튜브 '신한금융투자 알파TV'의 부동산 코너 '꼭다리, 부동산!' 2회차에서 '재건축 투자'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꼭다리, 부동산!' 2회차에서는 재건축 투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좋은 매물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지분 쪼개기와 뚜껑 매물 등 부동산 재건축 투자 시 주의할 점들에 대해 안내한다. 부동산 투자 컨설팅 전문가인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 장소희 수석연구위원이 어렵지만 꼭 알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박미경 기자



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 조감도.

/현대건설

현대건설, 광주 광천 재개발 시공사 선정

올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4조 9585억

현대건설이 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1조 7660억원 규모의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4조 9585억원을 달성했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일원 25만 446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3층 공동주택 5006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교통과 상업의 중심에 위

치한 광천동은 국내 최대 규모의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재개발사업에 광주광역시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적용, '디에이치 루체도르(THE H LUCEDOR)'를 단 지명으로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세계적 건축명가 SMDP와 손을 잡고 재개발사업 단지 디자인을 구현한다. 광주천, 무등산 소나무, 햇살 등 광주의 역사와 자연을 형상화한 5가지 타입의 외관 디자인으로 세련된 건축미와 역사적 상징성을 담아낼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kdh@